

IT/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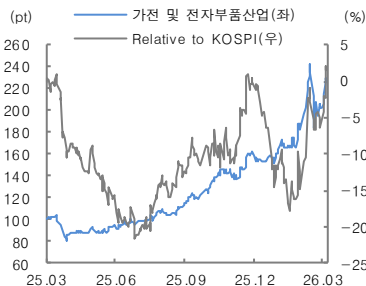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 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추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8.7	-5.8	-8.3
상대수익률	2.0	5.5	-9.5	-7.3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 대외 불확실성에도 마이크론 호실적으로 반도체 업황 긍정적 유지
- MLCC 가격 인상 가능성 부각
- PCB도 2026년 가격 인상 환율 우호로 수익성 개선 전망

수동부품 가격의 상승 기대감 확대.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IT 업종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상승에 무게를 두었다. 중동에서 전쟁 이슈, 유가 상승, 금리인하의 가능성 축소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수동부품인 MLCC, 그리고 반도체 PCB 중심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이전대비 높아지면서 2026년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상향, 밸류에이션의 상향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었다. 추가로 전기전자, 특히 수동부품(MLCC, 반도체 기판 등) 중심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이전대비 높아져 반동의 강도가 확대되었다. 환율(원달러)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익 상향 기대감도 긍정적이다. IT 및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MLCC : 무라타의 가격인상 가능성 제기

삼성전기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일본 무라타가 EMI향 파워인덕터의 가격 인상 언급으로 MLCC 가격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MLCC 업계가 높은 가동률을 2025년 이후에 유지, AI 인프라 투자 및 전력 소비가 확대되면서 소형 / 고용량급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버향 MLCC는 일본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양분 하고 있음을 반영하면 처음에 수율 향상으로 물량에 대응, 믹스 효과에 초점을 맞춘 생산 확대 이후에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가격 인상이 가능성이 이전대비 높아졌다. 메모리 업계의 가격 상승이 이익 상향을 견인 했던 점을 감안, MLCC의 가격 상승도 삼성전기의 실적 상향, 밸류에이션의 저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PCB : 2026년 신제품 기준으로 가격 인상 전망

PCB 업종의 주가도 동반하여 강세를 시현하였다. 그동안의 원자재(금,구리 레진 등) 가격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2026년 신제품에서 고객사가 가격 인상을 용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제품에도 가격 인상이 진행되면 2026년 PCB 업체의 수익성이 종전 추정대비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서버향 및 반도체향 패키지 중심으로 높은 가동률 유지, 믹스 효과로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성장세가 예상된다. FC BGA 사업을 영위한 기업(삼성전기, 대덕전자), 서버향 메모리모듈 및 패키지 업체는 높은 가동률과 믹스 효과, 여기에 환율(원달러)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추가 이익 상향이 진행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박강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의견	기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0.5%	9.5%	0.0%

(기준일자: 20260318)